금주의 법구-〈선림보훈〉
다른 이들의 이목을 내 이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게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게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28일)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호스피스 · 안전요원 등 불교 '活生복무' 제시를

화두 떠오른 대체복무제, 불교 역할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0년대 불자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이 있던 불교계서 호스피스와 안전요원, 간병인 등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를 정부에 선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조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불교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계(五戒) 중 첫째인 '불살생계'와 맞닿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짙다. 직접적으로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군사훈련이 살생의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견해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스님과 불자 중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호국불교'라는 특수한 한국불교의 이미지로 인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불살생의 종교인 불교계부터 '살생(殺生)'이 아닌 '활생(活生)'의 대체복무제를 논의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불교계가 대체복무제 제안을

2000년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표를 역임한 효림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를 떠나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부여돼야 한다. 단순히 병역을 넘어 엄연한 인권문제"라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호스피스나 간병인 등과 같은 대체복무안은 수차례 제시됐다. 불교가 소극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대체복무안인 호스피스, 양로원 · 고아원 봉사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구체적 방법 제시와 불교계 입장 정리를 위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불교계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부족하다. 이제는 불자를 비롯한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범불교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며 "대체복무의 가능성이 열린 만큼 군복무에 버금갈 정도로 힘들면서도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앞으로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동안은 헌법에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사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복무 희망자가 예상되는 불교계서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국불교' '승군' 해석 어떻게?

대체복무제 마련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걸림돌은 있다. 바로 고려시대 '항마군(降魔軍)'과 조선시대 '승군'의 역사다. 이는 승려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 무기를 들고 싸운 사례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연구와 더불어 호국불교에 대한 교리적 · 철학적 해석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임진왜란과 같은 역사적 상황 때문에 불교계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딜레마는 발생할 수 있다.

〈A2면에 기사 계속〉

불교국가 대만의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4~6개월 (현역 4개월)
복무분야	소방 · 의료 행정 · 환경 등
신청자격	신앙생활 증명

군사훈련 없는 대체복무제
2019년 12월 내 마련 예정
스님 · 불자 해당될 수 있어

그간 논의 소극적이던 불교
전문가들 '의견 수렴 당부'
"교리적 뒷받침 위한 연구도"



이제는 세계유산 '통도사' 성보 한자리에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산사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의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문을 열고 9월 30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7월 3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8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의 개막식을 열고 161점의 통도사 성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진 왼쪽) 등 참석자들이 개막식 후 전시된 성보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 박재완 기자

한국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쾌거'

30일 제42차 세계유산위서 결정… 통도사 등 7곳 모두 올라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날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가지는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 · 마곡사 · 선암사 · 대흥사 · 봉정사 · 부석사 · 통도사 7곳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13개의 세계유산을 갖게 됐으며, 불교 관련 세계 유산은 '석굴암 ·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韓 산사 가치, 세계가 인정

'한국의 산지승원'의 등재는 한국 산사의 독보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불교사찰들은 단독유산으로 개별 등재돼왔으나, '한국의 산지승원'은 한국 대표 전통사찰들이 가지는 포괄적 특징과 개념을 연속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은 "등재된 7개 사찰은 '산사'라는 대표성을 가지면서 지리적 · 입지적 · 신앙적 다양성을 대변한다"면서 "등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산사'라는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등재로 인해 천년 넘게 이어온 한국 스님들의 수행 · 생활 · 교육 등 무형적 요소들이 주목받으며 살아있는 유산으로 높게 평가 됐다"면서 "등재 이전에 참배객들이 사찰이 보유한 건축물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산사를 살아있는 승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봤다.

산사통합관리단 구성해 유지 · 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 6년마다 잘 보존되는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잘못됐을 경우 위험 유산으로 분류돼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계종 문화부는 7월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산사들의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조계종 문화부는 △산사 내 비지정 문화재 건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산사 종합정비 계획 △관광객 증가 대응 방안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등을 향후 계획으로 내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사통합관리단(혹은 산사세계유산센터 · 가칭) 설립이다. 이는 지난해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명시한 것으로 7개 산사를 통합 관리하는 종단 중심 기구로 해당 지자체들과 기관들도 참여하는 구조다.

조계종 문화부는 "산사통합관리단은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등재된 유산이 적절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7개 산사의 학술 · 보존 · 홍보들을 당담할 것"이라며 "등재 직후 대두되는 사찰 내 신축불사를 비롯한 종합 정비 및 관광객 관리 등도 통합관리단에 의해 관리 방향과 정해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은 점 단위의 유산이 아닌 면 단위의 유산으로 사찰에 입지한 건축물과 시설물은 모두 동일한 관리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산사의 가치를 지키며 규제로 박제화된 산사가 아닌 조화로운 변화를 통한 생명력 있는 산사로 보존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 칼럼 A5 · 19면〉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